



5월 중순부터 스릴 시설 순차 개장
 아쿠아틱 센터와 함께 국내 최장 길이인 550m 유수풀 전 구간도 4월 21일부터 손님을 맞았다. 이곳에선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긴 채 튜브로 동동 떠다니며 볼꽃, 나무 등 화사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. 야외 유수풀 주변으로는 바데풀, 버블탕 등 5개의 스파 시설이 마련돼 있어 낭만적인 노천 스파 분위기를 연출한다.
 4월 28일에는 폭 120m, 길이 104m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야외 파도풀이 가동을 시작했다. 이 밖에 메가스톱, 타워부메랑고, 아쿠아루프 등의 스릴 시설들은 5월 중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.
 한편 여름 성수기를 앞둔 4~5월의 캐리비안 베이는 한층 쾌적하고 여유롭다. 다양한 우대 프로모션이 진행돼 한층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다.
 자세한 내용은 에버랜드 홈페이지(<http://www.everland.com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📍

봄단장 마친 캐리비안 베이, 손님맞이 시작 실내 아쿠아틱 센터·유수풀 전 구간 가동

국내 최대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이 40여 일간의 봄단장을 마치고 4월 21일부터 순차 오픈했다. 완전한 봄을 맞아 야외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요즘 실내외 모두에서 신나는 물놀이와 따뜻한 스파까지 즐길 수 있는 캐리비안 베이 재오픈 소식은 반갑다.
 캐리비안 베이는 인근 용인시 환경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난방으로 실내는 물론, 야외 시설 전체의 평균 수온이 29도 이상으로 유지되어 환절기에도 따뜻한 물놀이가 가능하다. 특히 봄 시즌인 4~5월에는 여름철 성수기보다 한층 쾌적하고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
먼저 4월 21일에는 약 1만8천㎡(5천500평) 규모의 대형 실내 물놀이 시설인 아쿠아틱 센터가 문을 열었다. 아쿠아틱 센터에서는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. 여러 시설 가운데 찰랑대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파도타기를 할 수 있는 실내 파도풀과 4가지 슬라이딩 코스에서 맨몸이나 튜브로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는 퀵라이드가 인기를 끈다. 보디 캡슐과 마사지 머신을 통해 전신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릴랙스룸과 스파, 사우나 시설도 실내에 마련돼 있다.

